

---

## 부산 특화 금융 전략 검토 : 방산수출금융 허브 구축

---

본 보고서는 학술적 연구 및 공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상업적 용도로의 활용은 제한됩니다.

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기업 활동, 금융 투자 또는 법률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

# 부산 특화 금융 전략 검토 : 방산수출금융 허브 구축

(’26.1월,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금융연구1실)

## 1 국내외 방위산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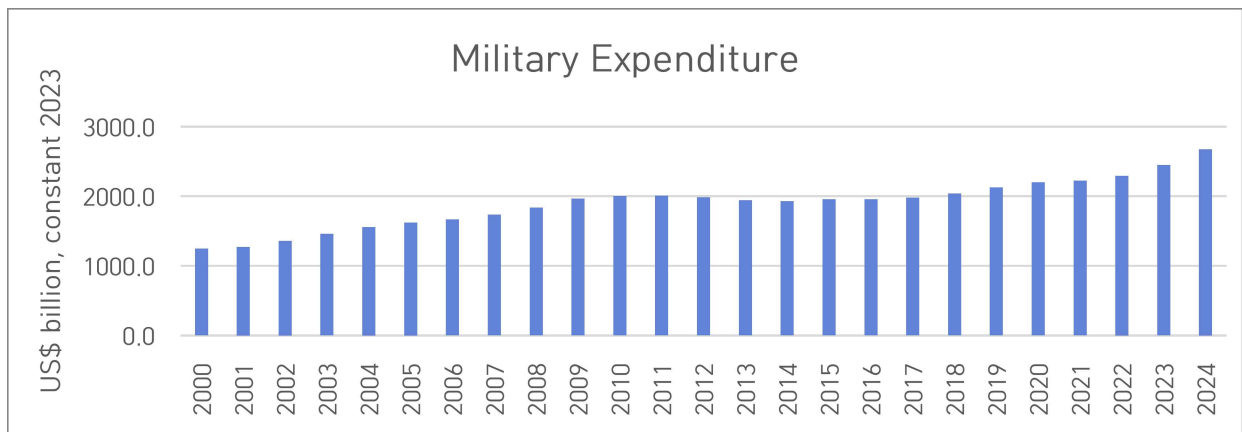
### □ 방위산업의 개념

- 방위산업물자등\*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(제조·수리·가공·조립·시험·정비·재생·개량 또는 개조)과 관련된 산업(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)

\* 방위산업물자(군수품 중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물자), 무기체계(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), 전략물자(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중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)

### □ 지정학적 긴장 지속으로 방위산업의 중요성 확대

- 끊이지 않는 분쟁과 주변국으로의 긴장 확산이 자국 방위비 증대로 귀결
  - 러시아-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며 유럽은 재무장을 추진 중이며, 가자 전쟁은 '25년 10월 휴전하였으나 불안이 지속
  - 미국-중국 간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며 국방에도 관심 증대
- 최근 글로벌 방위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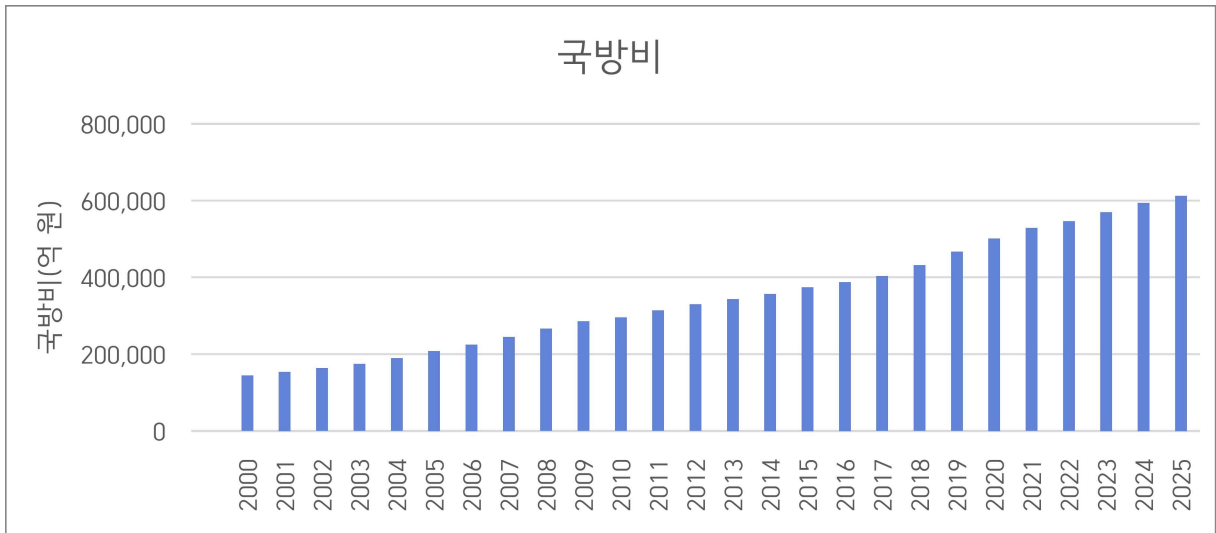
<자료 : SIPRI><sup>1)</sup>

1)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25, <https://www.sipri.org/databases/milex>

- '24년 기준 세계 방위비 지출은 2조 7,182억 달러(약 4,015조원)로, 미국이 9,973억 달러(약 1,473조원), 중국이 3,137억 달러(약 463조원, 추정치)를 차지<sup>2)</sup>

□ 방산 강국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

○ 국방 예산 증가 추세



<자료 : 국방부><sup>3)</sup>

- '25년 국방비는 61.2조원(전년 대비 3.1% 증가)으로 이 중 방위력개선비\*가 17.8조원을 차지

\* 군사력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무기체계의 구매·개량 등에 소요

-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(GDP)의 3.5%로 증액하기로 미국과 합의한만큼 국방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

\* (참고) '24년 명목 GDP(잠정) 2,556.9조원의 3.5%는 약 89조원

○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무기 수출 강국으로 활약

- 방산 수출 수주 실적이 '10년대 30억 달러 수준에서 '21년에 72.5억 달러로 급등했고 '22년 폴란드에 K2전차 등을 대규모로 수출하며 173억 달러의 실적 달성<sup>4)</sup>

- '23년 135억 달러, '24년 95억 달러로 2년 연속 수출 실적이 하락<sup>5)</sup>했으나, '25년 폴란드와 K2전차 2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수주 노력 진행

2)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25, <https://www.sipri.org/databases/milex>

3) 국방부, [https://mnd.go.kr/mbshome/mbs/mnd/subview.jsp?id=mnd\\_010401020000](https://mnd.go.kr/mbshome/mbs/mnd/subview.jsp?id=mnd_010401020000)

4) 국방부, 2022 국방백서, 2023, 147p.

5) 방위사업청, 유용원의원실 제출 자료 : 이성은, K-방산, 탄핵정국 불안 넘어 수출 확대 가속화 [韓산업 新도전 ②], iT조선, 2025.1.5., <https://it.chosu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023092131424>에서 재인용

주요 무기 수출 상위 국가(2020-2024)		
순위	국가	세계 무기 수입 시장 점유율(%)
1	미국	43.0
2	프랑스	9.6
3	러시아	7.8
4	중국	5.9
5	독일	5.6
6	이탈리아	4.8
7	영국	3.6
8	이스라엘	3.1
9	스페인	3.0
10	한국	2.2

<자료 : SIPRI><sup>6)</sup>

- 차세대를 책임질 주요 산업군으로 부상하는 K-방산
  - 방산지정업체의 방산부문 매출은 15.9조원('21년) → 16.8조원('22년) → 20.2조원('23년) → 26.8조원('24년)으로 상승 추세<sup>7)</sup>
  - 동유럽의 군비 투자 확대 계획에 대응해 한국 기업은 현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며, 전략 자산 노후화로 인한 교체 니즈가 있는 중동<sup>8)</sup>을 고려할 때 K-방산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기대
  - 정부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국정 과제로 선정한 만큼 K-방산이 한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## 2 세계의 방산수출금융 지원 제도

### □ 해외 방산 수출 금융 지원 개요

- 방산수출금융의 중요성<sup>9)</sup>
  - 제작 기간이 장기인 대규모 수출은 제작 자금 조달과 수출대금 회수 간 장단기 불일치 발생해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므로 수출자의 금융 지원이 중요한 조건

6)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, <https://armstransfers.sipri.org/ArmsTransfer/ImportExportTop>

7) 한국방위산업진흥회, 방산지정업체 경영분석조사(2025)&방산지정업체 경영분석조사(2024)&방산지정업체 경영분석조사(2023)&방산지정업체 경영분석조사(2022).

8) 이태환, 방위산업(올라온 체급, 증명의 무대), 대신증권, 2025.

9) 정영천, 방산수출금융 기반 확충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, 한국방위산업학회지(31권 2호), 2024, 12~14p.

- 수입국이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조달해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연불금융\* 형태로 상환하는 구조

\* 물품을 인도하고 일정 기간(3~5년)은 이자만 상환하고, 나머지 기간(5~15년)은 원금·이자 상환

○ 국제 무역 협정의 안보 예외 규정과 해외 국가들의 방산 수출 지원

- 일반 수출은 국제 협정 등을 준수해야 하나 방산은 안보 예외가 존재<sup>10)</sup>
- 공적수출신용의 공정한 운용을 위한 OECD수출신용협약은 상환기간 2년 이상의 재화·용역 수출에 대한 공적 지원에 적용되나 군수장비 수출에는 적용 배제<sup>11)</sup>
  - \* 공적수출신용기관(ECA, Export Credit Agency)은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정부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,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신용을 공여하고 기업의 대외거래를 대출·보증·보험·지분투자 등을 통해 지원<sup>12)</sup>

□ 미국의 특수한 방산 수출 지원 제도

○ 대외군사금융제도 중심의 지원

- 대외군사판매(FMS, Foreign Military Sales)\*제도를 통해 방산 물자를 판매하고, 대외군사금융(FMF, Foreign Military Financing)\*\*제도를 통해서 이를 지원하며,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(비군사적 목적)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짐<sup>13)</sup>
  - \* 대통령이 방위 물자·서비스 제공이 미국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할 때 미국 정부는 이를 외국 정부·국제기구에 판매할 수 있고(무기수출통제법), FMS 하에서 미국 정부와 외국 정부·국제기구는 정부 간 합의를 체결<sup>14)</sup>
  - \*\* 국무장관이 FMF 수혜국과 규모를 결정하고, 국방장관은 FMF 프로그램을 집행하는데, 이는 보조금(상환의무 없음)이나 대출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음<sup>15)</sup>

10) 안태훈,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, 국회예산정책처, 나보포커스(47호), 2024.

11) 수출입은행, <https://www.koreaexim.go.kr/HPHKWG003M01#none>(2025.12).

12) 한국수출입은행, 2023 세계 ECA·DFI·MDB 편람, 2023, 6p.

13) 정영천, 방산수출금융 기반 확충을 통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, 한국방위산업학회지(31권 2호), 2024, 15p.

14) DSCA(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), <https://www.dsca.mil/Programs/Defense-Trade-and-Arms-Transfers/Foreign-Military-Sales>(2025.12)

15) DSCA(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), <https://www.dsca.mil/Programs/Defense-Trade-and-Arms-Transfers/Foreign-Military-Financing>(2025.12)

## □ 유럽의 방산수출금융 지원 제도

### ○ ECA 금융 중심의 지원

- 수출신용기관이 위험을 제거 또는 보증하고 상업은행이 대출하는 ECA 금융을 주로 활용<sup>16)</sup>

### ○ 개별 국가의 방산 수출 지원<sup>17)</sup>

- (프랑스) ECA 및 일반은행 내 방산수출금융조직을 운영 중이며 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과 차별화된 신용등급을 적용
- (스웨덴) 수출금융기관(SEK)과 정부 수출보증위원회(EKN)를 통해 방산수출금융 지원

## □ 국내 방위산업 금융 지원 및 방산 수출 지원 제도

### ○ 방위산업 금융 지원 제도

- 방위산업공제조합\* : '21년 설립되어 조합원을 위해 보증·공제 사업 수행  
\* '24년말 기준 자산 3,978억원, 자본 2,896억원, 수익 652억원, 당기순이익 27억원<sup>18)</sup>
-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: 방위산업 육성, 국방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구개발·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이차차액을 방위사업청이 지원(2025-1차 이차보전사업의 융자추천 규모 3,500억원)<sup>19)</sup>
- 협약보증 :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은행·방위산업공제조합과 방위산업 수출·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('25.9월)하고, 총 2,000억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할 계획<sup>20)</sup>
- 방산 분야 최초의 정책형 펀드인 방산기술혁신펀드('23~'25년)에 이어서 K-방산 수출펀드\*가 출범 예정이고,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도 방산이 포함될 계획  
\* 방산 수출기업에 특화된 정책형 펀드로, 정부 재정 800억원에 민간자금 800억원을 매칭해 펀드를 조성하고 수출 실적을 보유한 방위산업 중소·중견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<sup>21)</sup>

16) 박근서(국방부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),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시스템 수립방안 연구, 2023, 39p.

17) 장원준·김미정·박혜지, 최근 K-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, I-KIET 산업경제이슈(158호), 2024, 3p.

18) 방위산업공제조합, <https://www.kdgc.or.kr/about/viewIdea02.do>

19) 방위사업청, 2025-1차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계획, 2025.

20) 기술보증기금(보도자료), 기보, 기업은행,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손잡고 K-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서, 2025.9.12.

21) 방위사업청(보도자료), 'K-방산수출펀드 출범 준비 끝, 2026년 상반기 투자 본격화', 2025.11.27.

○ 방산 수출 지원 체계

- (방위사업청) 방산수출 진흥의 컨트롤타워로 국제협력관을 신설('18년)하고 수출 기업 지원(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 등)과 방산수출입 관련 국제협력채널 구축 등 업무 수행<sup>22)</sup>
- (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) 산자부·국방부·방사청·무역보험공사·코트라 등이 참여해 설립된 방산 수출 지원 범정부기구로 구매국 정부와의 G2G 계약 체결, 구매국 정부의 요구를 토대로 한 협상안 마련, 수출 마케팅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<sup>23)</sup>
-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은 국내 방산수출금융 현황 참조
- R&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·원천기술에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이 추가되는 등 최근 방산 수출에 대한 지원 강화

○ 국내 방산수출금융 현황

- 1년 이내의 일반 방산수출거래에 대해 환어음 매입금융, 수출 팩토링을 비롯한 일반적인 수출금융 상품이 제공되나, 장기·고액의 대형거래는 상업은행의 일반 수출금융상품만으로 불충분해 ECA 금융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가 많음<sup>24)</sup>
- 수출입은행은 대출과 이행성 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 수출보험을 통해 방산수출 관련 대출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여 수출을 지원<sup>25)</sup>
- \*\* (사례)폴란드 방산 수출 1차 계약(K2전차, K9자주포 등)과 관련하여 수은과 무보가 각각 50억달러(6조 9천억원)씩 정책금융을 제공하였으며, 2차 계약(K2전차)과 관련하여 수은 13억달러(1조 8천억원) 및 무보 39억 달러(5조 4천억원)를 지원할 계획<sup>26)</sup>
- '25년 11월 하나은행이 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유럽 국가 대상의 3억 유로 규모 방산수출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<sup>27)</sup>하는 등 시중은행의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

22) 방위사업청, <https://www.dapa.go.kr/dapa/page/selectPage.do?menuSeq=3079&pageSeq=3199>

23) KODITS, <https://www.kotra.or.kr/kodits/contents/view?topMenuNo=1&contentsNo=2&levl=2&menuNo=2>

24) 박근서(국방부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),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시스템 수립방안 연구, 2023, 46-47p.

25) 박근서(국방부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),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시스템 수립방안 연구, 2023, 47-48p.

26) 수출입은행 : 이창명·박소연, K방산 수출에 날개 단 K금융...은행들 폴란드 진출 열풍, 머니투데이, 2025.8.4., <https://www.mt.co.kr/finance/2025/08/04/2025080416081750269>에서 재인용

27) 전민준, 하나은행, K방산 유럽수출에 3억유로 펀다... 생산금융 물꼬트기, MoneyS, 2025.11.30, <https://www.moneys.co.kr/article/2025112913580513064>

## □ 방산 수출 지원 필요성

- 방산 수출을 통한 국방 능력 향상 및 수입국과의 협력 강화
  - 방산 수출을 위한 기술 개발과 생산 기반 확대는 한국 국방에도 기여하며, 방산 수출을 통해 수입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
- 방산 수출의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성
  - 무기체계는 한번 도입하면 다른 국가의 무기체계로 이전이 어려운 잠금 효과가 존재해 선점이 중요하며, 장기간 수리·정비시장까지 연결 가능해 선진국은 구매국이 원하는 반대급부(수출금융, 기술이전 등) 제공을 위한 제도로 발전시킴<sup>28)</sup>
  - 방산 수출 금융은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상업은행 대출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출신용기관의 지원 등이 필요<sup>29)</sup>
- 외국과의 경쟁을 위한 지원
  - 해외 국가들이 방산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국우선주의 확산과 K-방산에 대한 견제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

## □ 탄탄한 동남권 방위산업 기반

- 방산 기업이 밀집한 K-방산의 중심지
  - 한화에어로스페이스(창원 사업장), 현대로템,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 등이 위치한 경남 지역은 한국 방위산업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어 동남권 방산 기반은 탄탄한 상황
    - \* 부산·경남 행정통합과 동남권 등 초광역권이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경남의 방산 기반과 부산의 금융 기반을 결합하여 방산수출금융 허브를 구축할 필요
  - 방위산업 기업 본사의 38.3%가 경남 지역에 위치하며 부울경 지역 합산시 49.2%이고, 매출액 기준으로도 경남이 압도적 위상을 보이고 있음

28) 장원준, '방산수출, '잠금 효과(Lock-In)' 고려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먼저다', 뉴스투데이, 2023.6.12, <https://www.news2day.co.kr/article/20230612500009>.

29) 김호건·김명건, 방위산업의 특성 및 수출전략, 한국수출입은행, 이슈보고서(2022-이슈-11), 2022, 5p.

지역	2023 방산기업 소재지 현황		
	본사(개)	공장(개)	연구소(개)
서울	29	3	10
인천	23	13	9
경기	83	57	60
강원	1	2	1
대전/세종	19	17	21
충북	5	11	5
충남	14	16	7
광주	5	3	4
전북	4	9	6
전남	2	4	2
대구	10	9	5
경북	33	38	13
부산	45	24	16
울산	4	6	3
경남	172	108	57
국외	-	13	-
합계	449	333	219

<자료 : 방위사업청><sup>30)</sup>

지역	2023 지역별 방산기업 매출액(억원)
서울	501
인천	4,630
경기	21,404
강원	10
대전/세종	14,558
충북	4,962
충남	2,360
광주	3,646
전북	1,528
전남	2,801
대구	486
경북	44,673
부산	8,835
울산	3,947
경남	110,765
국외	-
합계	225,106

<자료 : 방위사업청><sup>31)</sup>

30) 방위사업청, 방위산업실태조사(조사대상은 지정 방산업체, 무기체계 연구개발 참여 업체, 수출허가 전략물자 관련 업체, 방산업체에 납품이력이 있는 협력업체 중 3년 연속 방산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체/공장과 연구소는 민수, 공통, 방산전용 합산)

- 방산 전시회를 통해 동남권 방위산업의 위상을 확립
  - 부산 국제해양방위산업전, 사천에어쇼, 창원 이순신방위산업전 등이 부울경 지역에서 개최되어 동남권 방위 산업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음
- 국가·지자체의 지속적 육성 의지 표명
  - 방위사업청이 방산 부품의 국산화 확대 등을 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지역을 경남·창원으로 결정('20년)하여 5년간 지역 중심 방위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<sup>32)</sup>
  - '22년에 경상남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이어서 창원시 방위·항공부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 차원의 육성 의지도 강력
  - 방산 4대 강국 진입이 국정 과제로 선정된 점, 경남과 창원이 창원 제2국가산업 단지(창원 방위·원자력융합국가산업단지)의 국가·전략사업 대상지 지정 재심의를 신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·지자체의 육성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
- 방위 산업 지원 기관을 통한 산업 육성
  - 경남테크노파크 방위산업본부, 창원산업진흥원 방산항공우주팀 등을 통해 방위 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에 의해 경남창원방위 산업진흥센터 개소('24.12월)
  - 군수품 품질보증 지원 등을 담당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경남 진주에 있고, 부산 국방벤처센터·울산국방벤처센터·경남국방벤처센터가 지역의 관련 중소·벤처기업 지원
    - \* 국방벤처센터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운영
- 인재 육성 기반을 갖춘 미래 방위산업 전문가의 요람
  - 경남 지역에서 경남대 군사학과 방산융합전공·창원대 대학원 첨단방위공학과정·경상대 우주항공방산융합학부 등 활발한 방산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음
  - 부경대는 무기체계공학과(대학원)를 통해 방산 인재 양성 중이고, 부산대는 국방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고 '25년 6월 해군사관학교와 MOU 체결하는 등 부산의 방산 인재 육성 체계 마련

31) 방위사업청, 방위산업실태조사(본사, 공장, 연구소 매출 합산/미제출 업체로 인해 총합 수치는 맞지 않아 유의)

32) 방위사업청(보도자료), 『방산혁신클러스터』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남·창원 선정', 2020.4.23.

□ 부산을 동남권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산수출금융 허브로 육성할 필요

○ 부산 금융중심지를 위한 새로운 특화전략 발굴

- 부산 금융중심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며 방산수출금융 활성화를 그 대안의 하나로 부각

○ 동남권 방위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금융중심지 성장을 동시 달성

- 경남을 중심으로 지역 방위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부산은 금융중심지를 갖추었음

- 부산 금융중심지의 방산수출금융 허브화를 통해 동남권 방위산업 활성화와 부산 금융중심지 특화 전략 다각화를 동시 달성해 Win-Win 관계 구축

○ 조선업 등 제조 기반 및 해양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

- 부울경 지역은 방산 뿐 아니라 방산과 밀접한 조선업 등 제조업 기반을 보유해 방위산업의 추가 확대 여력이 충분하며 부산 금융중심지도 해양금융과 방산수출금융을 기반으로 하여 수출 금융 전반으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

#### **4 부산 방산수출금융 육성 방안**

□ 부산의 해양금융 기반과 연계하여 방산수출금융 활성화

○ 해양금융과 방산수출금융의 연계 가능성

- 국내 조선사가 미 해군 MRO 사업에 진출하는 등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밀접

- 해양금융 특화를 통해 얻은 장기, 대형 계약에 대한 금융 지원 경험을 방산수출금융에서의 전 단계 금융 설계,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 가능

○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방산·해양금융종합센터(가칭)로 확대 개편

- 현재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산업은행이 협력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운영

- 기존 해양금융종합센터 조직에 방산 금융 담당 인력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방산·해양금융종합센터 전환을 추진하고, 향후 수요가 확보되면 방산 금융종합센터로 독립하는 방안 추진

□ 부산의 디지털 금융 기반과 연계한 혁신을 도입

○ 방산수출금융에 토큰화 도입을 실험

- 수출대금채권 또는 방산수출 관련 대출금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한 토큰화 실증을 추진해 자금 조달 다각화 모델을 시험

○ 블록체인 기반 방산 수출 원스톱 플랫폼 구축

- 계약·심사 등 방산 수출의 단계별 진행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연계해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플랫폼에 축적된 단계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사 및 사후 관리 모델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

□ 정책 펀드 및 별도 기금을 활용한 방위산업 활성화

○ 부울경 방산기업이 정책 펀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

-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에 부울경 지역에 자리 잡은 유망 방산 기업이 다수 편입될 수 있도록 운용사 대상 IR 등을 적극 지원

\* '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확정에 따라 5대 중점분야에 150조원 공급이 계획(중점분야 150조원 공급계획과 국민성장펀드는 별도)되었으며 이 중 방위산업 등이 포함된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대한 자금 공급은 24.7조원으로 계획<sup>33)</sup>되어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기대

○ 대규모 수출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가 필요

- 초대형 방산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인 금융 지원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 수요가 발생\*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수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

\* 폴란드 1차 계약에 따른 금융 지원으로 수출입은행의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(자기 자본의 40%)가 거의 소진되어 법정 자본금 증자(15조원→25조원)를 위해 수은법 개정

- 대규모 수출 지원을 위해 신설 논의 중인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

- 방산·원전·플랜트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계에 부울경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수요가 반영되도록 지역 방산 기업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건의 필요

33) 금융위원회, '26년 정책금융 계획 252조원 중 150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, 2025.12.24.

□ 관련 기관 유치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집적 효과 극대화

○ 관련 기관 유치를 통한 집적 효과 확대

- 방산수출금융 허브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유치를 통한 집적 효과 창출이 필요
- 부산으로 본사 이전 또는 부산 지사 설치를 추진할 대상 기관으로 방위산업공제조합(서울, 경남센터는 창원),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(서울), 한국방위산업진흥회(서울, 방위산업교육센터는 서울·창원·구미) 등 검토

○ 동남권 방산수출금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 강화

- 지자체와 동남권 소재 방산 기업 및 방위산업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강화

□ 인재양성으로 부산 방산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뒷받침

○ 계약학과 지원 사업을 방산금융 분야까지 확대

-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 사업\*은 주관 대학이 계약학과(채용조건형·재교육형)를 설치하여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정부가 등록금·운영비를 차등 지원

\* '24년 세종대·연세대·한밭대가 석사 11명을 최초 배출하였고, '25년 8월 서울과기대·광운대가 석사 14명 배출<sup>34)</sup>

- 수출입은행 등 방산금융을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산 소재 대학에 방산금융 계약학과(재교육형)를 개설하여 기존 직원의 전문성 강화 추진
- 계약학과(재교육형)의 교육 효과가 입증되면 방산 금융 관련 기관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에도 참여할 유인이 높아져 단계적 확장이 가능

○ 학부 단계의 방산금융 마이크로디그리 및 방산금융트랙 개설

- 방위산업 계약학과는 석박사 과정 중심인만큼 학부 과정의 방산금융교육도 필요
- 별도 학과를 신설하기에 앞서 부산 지역 대학교에 세분화된 전공 분야를 적은 이수 부담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를 개설해 금융 및 방위산업공학 전공 과목을 15학점 내외 수강시 방산금융 마이크로디그리 부여
- 지역 대학 경제학과 또는 기계공학과에 24학점을 이수하는 방산금융트랙 신설

34) 방위사업청(보도자료), 무인로봇·AI 중심 방산강국 도약을 위한 우수 인재 첫 배출, 2025.8.21.

□ 국제 전시회 개최를 통한 방산수출금융 허브로서의 위상 확립

- 수출 계약·협회의 무대가 된 서울 ADEX(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)가 서울공항(성남시)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김해공항을 활용하되, 부산의 입지를 살려 부산항도 함께 활용한 전시회 개최 추진
- 이때 기존에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을 국제해양항공방위산업전으로 개편해 바다와 하늘을 아우르는 행사로 확대하고 금융기관 참여를 늘려서 수출 계약·금융 상담·투자 유치에 이르는 방산수출금융 플랫폼 기능 강화
- 동남권에서 개최되는 사천에어쇼(우주항공방위산업전), 이순신방위산업전 등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동남권 방산·항공·해양 클러스터의 연계성과 시너지 강화

□ 방산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

- 수출금융 형태가 아니더라도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품 국산화에 대한 기여가 가능하고 이는 방산 수출 확대로 연결
- 부산국방벤처센터 역할 확대 및 지역 소재 금융기관과의 연계
  - 부산국방벤처센터는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기업을 모집해 기업에 기술(개발비 지원, 전문가 자문 등) 및 경영지원(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등) 제공(사업비 : 국비 2억원 + 시비 2억 5천만원)<sup>35)</sup>
  - AI 특화·수출 사업화·투자 유치 등의 트랙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구축하고, BNK·기술보증기금과 협업해 부산국방벤처센터가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약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

□ 방산수출금융허브 구축을 초광역권 구축의 마중물로

- 동남권 동반성장 엔진이 될 방산수출금융허브 구축을 정부 전략에 반영
  -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에서 동남권은 5개의 초광역권 중 하나인 만큼 금융허브 부산과 방산허브 경남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남권 동반성장 엔진이 될 방산수출금융허브 구축이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

35) 부산시(보도자료), 「「부산국방벤처센터」 신규 협약, 지역 방산 생태계 활성화 도모」, 2025.5.22.

○ 행정통합 논의에 대응한 경제적 협력축 마련

- 최근 대전·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부상하며 지자체 간 행정통합 이슈가 촉발
- 부산시·경남도가 '24.11월 부산·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간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(53.7%)이 과반을 차지하여 통합 추진에 탄력<sup>36)</sup>
- 행정통합이 실질적 융합으로 나아가려면 부산·경남을 이어주는 경제적 협력축이 필요
- 산업과 금융, 부산과 경남이 연계되는 방산수출금융허브가 협력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허브 구축에 대한 지지 확보

---

36) 최혜규, 빨라진 행정통합 시계… 통합 단체장 선출 시점 관심 [부산·경남 행정통합], 부산일보, 2026.1.5., <https://www.busan.com/view/busan/view.php?code=2026010518353742833>.